

이 기사는 지난 3월 27일 진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린 한국임업신문사 주최 '광복 70주년, 식목일 70주년 기념 우리 임업이 나아갈 방향'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임업이 나아갈 방향 대토론회

한국임업신문사

식목일 70주년 임업기회의 해...

모든 것 확 바꾸자

매어둔 것 풀고, 막힌 것 뚫고,

어둠은 광명으로 새 임업 창조해야

광복 70년, 식목일 70주년을 맞아 임업계에서는 올해를 '임업혁신 기회의 해'로 삼아 임업 대도약의 활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복 70년, 식목일 70주년을 맞아 미래임업 70년의 새 목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임업 70년의 정책과 기술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혁신의 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업계에서는 올해 광복 70년과 식목일 70년의 의미를 세계역사 속의 70년 전환기 역사에 비추어 정책부문을 비롯한 모든 임업적 비정상상의 문제점을 훌훌 털어내고 새 시대, 새 임업의 새로운 기초를 재정비하는 '임업 대혁신의 해'로 삼을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역사속의 70년은 매었던 것을 풀리게 했고, 막혔던 것을 뚫리게 했으며, 흑암의 세계를 광명의 세계로 바꾸는 새 역사 창조의 '기회의 해'가 되어 주었다며 식목일 70주년의 올해는 대한민국 임업미래 부흥의 역동적인 성장 동력을 발동하는 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민등산에 나무를 심어서 풍요로운 국토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독림가’들은 한국임업신문 주최로 가진 식목일 70주년 대토론회에서 광복 70년, 식목일 70주년을 맞아 미래임업 70년을 위한 대혁신을 위해 산주의 권익을 저해하고 발목 잡는 70년 묵은 비정상의 관행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주 임업인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묵은 관행의 임업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피땀으로 심었던 산림의 ‘나무’를 부가 가치 높은 자원으로 육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산주·임업인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미래임업 70년의 성공을 향해서 함께 달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세월동안 임업경영으로 경영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임업인들은 “임업대혁신의 원동력은 ‘정부와 산주·임업인들의 일심동체’에서 용솨음쳐 오를 수 있다”며 “임업미래 70년의 소망을 성취하여 줄 정부의 정책은 산주·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정책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단정하면서 “산주·임업인들의 생업터전인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업6차산업화를 통한 수익성이 플러스 되도록 지원한다면 미래임업 70년 새 임업창조의 역사가 이룩되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제2의 산림녹화성공 기적을 빛내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



박정희

“젊은 후계임업인 없는 임업성공 없다. 경제적 이익 보장 돼야 대물림 가능”



한철웅

“내가 심은 나무 결국 국가소유… 규제 안 풀면 정부 서도움준 것 없다”



이육형

“잘 가꾼 산 ‘보전 지역’ 묶어 70년 후 장기 목재생산림 거의 없어질 것”



이병학

“낙엽송 벌기령 30년으로 낮췄는데 30년생 낙엽송 목재는 좋지 않다”



이충일

“산주 지원보다 산림경영규제 더 많아 대한민국에서 산 가꾸는 것 고난이다”



유승열

“최근 나무 팔았는데 헐값에 팔았더라, 그때부터 산이 다시 보였다”